

# 소외 이웃과 눈높이 맞추며 자비행

## 미소원 2008년부터 상담·반찬봉사로 소외 이웃 돌봐

심리상담과 소외된 이웃 돌보기로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봉사단법인 미소원(이사장 장유정)이 오는 9월부터 매월 두 번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심리상담을 실시한다.

부산 동구 범일동에 위치하고 있는 미소원 소속 상담전문 봉사자 10명은 소외된 어르신들 한 분씩 선정하여 지역 내 동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1대1 만남의 자리를 갖는다. 후원자 포함 600여 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미소원의 봉사는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봉사로 소외된 이웃의 삶을 위로하고 자존감을 되찾아 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미소원은 "시대에 맞는 봉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을 위한 심리상담은 유용할 것이며 앞으로도 활성화돼야 한다"며 시대에 맞는 봉사를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미소원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부산 교도소 및 구치소·소년원에서 매월 두 차례 진행되는 상담봉사와 범죄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는 폐쇄된 환경과 죄책감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고 있다. 특히 실형을 선고받지 전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는 재소자들과 살인·폭력 등 씻기 어려운 죄를 지은 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감싸는 것이 바로 미소원 상담

봉사자들의 역할이다.

또한 특수한 환경상 범죄는 참회로 시작하되 레크레이션 등 웃음이 가득한 법적으로 재소자의 무거웠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있는 소년원에서 상담은 주부인 미소 상담봉사자들이 어려워하면서도 가장 뿌듯하게 여기는 봉사활동이다. 가족처럼 판단하고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아픔과 환경을 공감

## 2008년 기도로 서원 세우고

### 교도소 상담·어르신 공방 대접 9월부터는 어르신 심리상담도

해주는 것이 바로 미소원 봉사자들의 노후이다.

미소원은 상담봉사를 넘어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봉사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월요일에는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죽 20인분을 준비하고 목요일에는 각종 반찬을 어르신들께 전달한다. 봉사 분야가 많다 보니 후원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만 미소원은 자원봉사를 등록한 봉사자 600여 명이 매월 내는 만원의 회비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 즉 미소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봉사는 미소원 회원 모두가 십시일반 마음을 내어 소외된 이웃에게 화합하는 형태이다.



어르신 반찬만들기 봉사에 동참하고 있는 미소원 봉사자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한편 미소원은 현 미포수 회주 정 각 스님이 문화와 나눔을 목적으로 부산 자비원 봉사회를 만든 것으로 시작됐다. 자비원 후원회장이었던 장유정 이사장은 자비원 회원들과 체계적인 봉사를 위해 공간을 마련을 위해 2008년부터 매월 1080회 기도 명언집 기도로 서원을 발원했다. 기도 덕분인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후원금이 생겼고 동참하는 이들도 늘어났다. 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 장유정 이사장은 미소원을 사단법인 봉사 단체로 본격적인 자비행보를 시작했다.

장유정 이사장은 "미소원은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곳이다. 배고픈 회원 모두가 십시일반 마음을 내어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손님이지만 봉사자들은 곧 미소원의 주인이 된다. 또한 봉사할 때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고 행복한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전했다. 이어 장유정 이사장은 재소자들을 위한 상담에 대해 "수행자를 수행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참회를 하되 남은 여생을 타인을 위한 삶으로 회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 미소원 스님들의 몫"이라며 미소원 상담봉사의 중요성을 전했다.

한편 미소원은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자포장을 개설하는 등 봉사자들이 체계적으로 믿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 (051)646-9074

김나영 객원기자

# 팔관재계수계법회로 정통성 살린다

## 2014 팔관회, 10월 17~19일 용두산 공원에서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수 불, 이하 부불련)가 '2014 팔관회'를 10월 17일~19일까지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는 8월 21일 이사회에서 영총총림 통도사, 금정총림 범어사 등 올원스님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팔관회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했다.

부불련은 팔관회를 첫째 날과 둘째 날인 17·18일은 용두산 공원에서, 셋째 날인 19일은 범어사에서 봉행하며 학술관련 토론회 및 세미나를 비롯, 역사적인 자료를 입증하는 행사부터 위령제, 팔관재계수계법회 등 전통행사도 진행하게 된다.

또한 부불련은 사명대사 열반 404주기 추모대회를 팔관회 마지막

날인 19일에 부산 초읍 어린이대공원 사명호국광장에서 봉행해 국가 수호를 위해 공을 세운 사명대사의 뜻을 기리며 신라와 고려의 대대적인 국가행사였던 팔관회에 의미를 더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또한, 부불련은 이번 2014 팔관회를 통해 팔관회 고유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나영 객원기자

## "학생들에게 불교문화 널리 알릴 터"

### 금정총림 범어사 부산대와 MOU 협약 체결

부산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수불)가 부산대(총장 김기섭)와 불교문화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8월 25일 범어사 주지실에서 수 불 스님, 김기섭 부산대 총장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이날 협약식은 주지 수불 스님과 김기섭 총장의 협약서 서명날인으로 양측 간의 교류와 우애를 다짐했다.

수불 스님은 "부산의 대표적인

대학교와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불교를 모르는 일반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기섭 총장은 "저희 부산대는 범어사와 함께 지역문화 창달에 앞장서겠다. 또한 범어사가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 등을 학술적으로 연구하여 지역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범어사와 부산대는 오는 9



범어사와 부산대학교가 업무협약을 맺고 불교문화를 널리 알릴 것을 다짐했다.

월 부산대 평생교육원 불교문화 이해과정 개설을 첫 시작으로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김나영 객원기자

## 대구 능화사 10년 연속 강연 'Start'

### 9월 21일 두 번째 강사로 덕문 스님 초청

대구 동구 능화사(주지 혜강)가 '108명의 명사와 함께하는 우리의 이야기' 연속강연을 시작했다.

능화사는 8월 17일 전현호 신부(대구 가톨릭대 교수)를 초청 첫강연을 열었다. '몸에 관한 우주적 교향'이란 주제로 50여 명의 불자들이 강연을 경청했다.

전현호 신부는 "우주라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 살아

가는 것이 현명한 삶"이라고 전했다.

능화사의 '108명의 명사와 함께하는 우리의 이야기' 두 번째 강사는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이 나선다. 9월21일 오후2시 강연.

능화사는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오후2시 종교, 문화, 법률, 교육, 언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 매월 1명씩 10년간 강연을 진행한다. 향후



능화사 강연 첫 강사로 나선 전현호 신부

능화사는 이 강연을 엮어 책으로도 출간할 계획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우리 마음에는 자비와 사랑이 있습니다"

## 쿠무다 북카페 헤민 스님 초청 북콘서트



헤민 스님이 송정 북카페 쿠무다 법당에서 문화콘서트를 열었다.

현대의 힐링멘토인 헤민 스님이 8월 23일 부산의 대표 북카페 '쿠무다'에서 북 콘서트를 열었다.

부산 송정에 위치하고 있는 함양 대운사(주지 주석) 부산불교학당 부설 북카페 '쿠무다'는 네 번째 문화 콘서트의 강연자로 헤민 스님을 초청했다.

주석 스님은 "불자들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들과 송정 바닷가를 찾는 방문객들이 복합문화공간 쿠무다에서 커피 한잔과 함께 헤민 스님의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날 헤민 스님은 참가자 200여 명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에 노출되다 보니 타인에게 화를 내곤 한다.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자비와 사랑이 있다. 화가 나면 숨을 다섯 번 크게 내쉬면 된다. 그리고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헤민 스님은 "만약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아픔이 있었기에 저렇게 상처를 줄까'라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며 타인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당부했다. 한편 쿠무다는 지속적인 문화콘서트 개최로 불자는 물론 일반인에게 문화의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나영 객원기자

## 추석 맞아 이웃에게 사랑과 정 나눠요

### 용호종합사회복지관 400세대 초대 어울림마당

사단법인 위드아시아(이사장 지 원)가 위탁 운영하는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충성)이 추석 맞아 사랑과 정을 나누는 한가위 어울림 한마당을 9월 4일에 개최한다.

부산 용호동에 위치하고 있는 용

호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 2층 강당에서 홀로 어르신, 한부모가정, 장애인 세대 등 총 400세대를 초대해 쌀 및 생필품을 전달하며 국악 및 풍물패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소외된 이웃의 한가위를 챙긴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한가위

는 우리에게 가족들과 함께 하는 큰 명절이지만 지역 내에는 외롭고 쓸쓸하게 명절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많다. 따라서 이번 한가위 어울림 마당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한가위를 만들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어울림 한마당의 취지를 밝혔다.

김나영 객원기자

# 법화경의 다보탑, 부처님의 무량광 빛의 묘탑 현지사에 솟아오르다!!

### 지구촌 보물 3호 '현지사 다보탑', 말법시대 중생들에게 소원성취와 업장소멸을 이루어주는 또하나의 대복전!



초파일 초불등으로 장엄된 다보탑

## ■무량광 빛의 묘탑 다보탑 - 다보부처님과 무량무수 본화보살님들께서 머무는 성소(聖所)

다보탑은 다보부처님께서 머무시는 성소입니다. 여기에서 다보부처님께서 항상 대적정상에 들어 계시면서 법에서 중요한 불교사적 사건이 있으면 출현해서 증명이 되어주십니다. 광명만덕 큰스님께서 불과를 증할 때도 솟아나서 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다보탑은 수많은 본화보살(本化菩薩)님들의 거처이기도 합니다. 본화보살님들은 불경을 갖춘 최상수보살님들로서 한번 한번의 위신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의 천태지의 대사는 부처님을 적불(醍醐-화신)과 본불(本佛-보신)로 구분하고, 이 본불에 의해 교화된 보살님들을 본화보살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 본화보살은 사바세계 남부주에 사람됨을 받으신 적은 없지만 항상 이 사바세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불보살님들의 중생교화를 돕습니다. 다보탑은 이 본화보살님들의 주처입니다.

## ■《법화경 견보탑품》 중에서의 다보탑

"그 때 부처님 앞에 칠보탑이 나타나니 높이가 이만리요 가로세로가 만리씩인데, 땅에서 솟아나고 공중에 머물렀다. 갖가지 보물로 장식되었는데 난간이 오천이요 감실이 천만이라, 보배 영락 드리우고 사면에서 천단향 냄새 세계를 가득 채우고 무수한 보배 깃발 세워 꾸미어 높이가 사천왕의 공전에 닿았거늘, 무수한 하늘 사람들이 온갖 화과 꽃과 음악으로 칠보탑에 공양하고 공경 찬탄하였다. 그 때 부처님께서 대요설보살에게 이르시었다.



대적광전과 석가탑 다보탑

이 보배탑 속에는 여래의 전신이 계시느니라, 지난 세상에 동방으로 향량없는 천만억 아승지 세계를 지나가 세계가 있었으니 보정(寶淨)이라 이름하였으며 저 세계에 부처님이 계시어 이름을 다보(多寶)라 하시었느니라."

## ■다보여래부처님이 계시는 보정정도

보정정도는 다보여래부처님이 계시는 정토입니다. 서방 극락정도와 동방 정유리정도보다 더 우고 무수한 보배 깃발 세워 꾸미어 높이가 사천왕의 공전에 닿았거늘, 무수한 하늘 사람들이 온갖 화과 꽃과 음악으로 칠보탑에 공양하고 공경 찬탄하였다. 그 가운데에는 불경을 갖춘 최상수 보살님들도 많습니

"불경을 갖춘다"는 것은 이 보살님들이 아직 원만보신을 증득하지 못한 점을 제외하고는 그 지혜와 위신력이 부처님들과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이 될 최후 단계의 보살님들입니다. 다보여래부처님은 이 본화보살님들을 통솔하는 삼계지존이시고 석가모니부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주의 법왕이십니다.

## ■석가모니부처님과 다보부처님 두 부처님의 실존과 법의 진실을 증명코자 두 탑을 세우다

현지사에서 석가모니부처님과 다보여래부처님의 실존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불법이 만고불변의 우주적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 석가

탑과 다보탑을 나란히 건립했습니다. 다보탑과 석가탑은 각각 4각과 8각으로 조성되었는데 이는 4성제와 8정도를 상징합니다. 4성제와 8정도는 연기의 이법을 바탕으로 중생들의 고통스런 삶에 궁극적인 해법을 제시한, 부처님께서 발견하시고 드러내보인 우주의 이 법입니다. 석가탑과 다보탑은 불법이 만고의 우주적 진리를 선언한 것입니다. 다보탑은 석가탑과 마찬가지로 불과 이론 성지에 의해 정안이 되어 보정정도의 실재의 탑과 링크되어 빛으로 하나가 된 불교사상 미증유(未證有)하고 유일한 탑입니다. 탑들이 하면 말법시대 중생들의 소원을 성취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업장소멸의 가피를 내려주시는 중생들의 대복전입니다.



초파일날 불자들이 탑돌이를 하고있다

**자재 만현 큰스님 법회 안내**

**현지사 춘천본사 정기법회**  
9월 21일(일) 오전 9시

업장을 씻어주는 세계유일의 부처님회상에서 불과 이론 큰스님의 사자후를 들어보십시오! 세계 어느 불교에서도 몰랐던 부처님세계와 인간 영혼체에 대한 깊은 비밀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21세기 인류정신을 향도하고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야 할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를 만나보십시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만현 큰스님의 동영상 법문(248회)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버스 운행합니다.  
문의 033)243-1787, 1795